

# 행사 공간에서 생활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글 이철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사무국장 · 예술의전당 부장

## 지역축제 활성화, 문예회관 운영에 부정적 요소로

2002년 6월 18일 저녁, 한국과 이탈리아와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던 그 시간에 예술의전당에서는 부천필하모니 연주가 있었다. 평소보다 적게는 800명에서 많게는 1천여 명이 적은 관람객이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8강전이 열리는 6월 22일에는 연극 <레이디 맥베스> 공연을 취소하였다. 공연장 밖 월드컵 경기 열기가 공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국가대사에 공연을 하겠다는 생각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월드컵 조 추첨을 하기 이전에 결정된 공연이고, 누구도 8강 진출을 장담하지 못하던 때, 경기 훨씬 이전에 잡힌 공연 날짜가 하필 한국과 이탈리아가 8강 진출을 겨루는 날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 공연 담당자나 주최자가 관람객이 적었다는 이유를 월드컵 탓으로 돌리거나 한국이 이겨서 8강에 진출한 것을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스페인과 4강 진출을 겨룬 6월 22일 오후 3시 반, 예술의전당이 스페인 무용단을 초청하여 그 시간에 공연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공교로운 일치는 공연장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월드컵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공연장뿐이 아니겠지만 공연장은 특히 외부 환경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연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외부 환경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반면에 순수 공연예술의 경우에 외부 환경요인에 의하여 관람객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400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 축제는 70% 이상이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된 축제다. 전통 동제나 지역축제는 이미 오래 전에 단절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 생긴 축제는 관 주도의 행사성 축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비율은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 1%보다 높은 자치단체 예산의 2~3% 이상이다. 그 중 지역축제 예산은 다른 문화 부분 예산보다 규모가 크다. 매년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씩 열리는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 중에 비중이 높아지는 지역 문화사업의 하나다. 이 축제가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생활화하고 지역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된 문예회관 운영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옥외 행사

지역축제가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지역문화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건립된 문예회관 운영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실제로 공연을 기획할 때 축제 분위기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로 극장 밖에서 부대행사를 열다보면 극장 안의 공연은 텅텅 빈 상태이고 마당만 법석대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종종 볼 수 있다.

중심이고 1년에 한두 번 벌이는 잔치이다.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축제는 문화를 연중행사이거나 집단적 해소 여건의 장으로 인식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월드컵 기간 중 예술활동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역축제가 문예회관 운영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난 첫째 변화로 들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공연을 기획할 때 축제 분위기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로 극장 밖에서 부대행사를 열다보면 극장 안의 공연은 텅텅 빈 상태이고 마당만 법석대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종종 볼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역축제에 1년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문예회관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문화의 생활화와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1998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실시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문예회관 관장의 능력을 문예회관 활성화의 중요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예회관은 대체로 연례행사인 축제사업에 함몰되지 않고 꾸준히 예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 중심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경우로 꿈을 만하다 할 것이

다.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정도는 관장의 능력 정도에 국한하지 않고, 특히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배려가 큰 변수라는 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나타난 두번째 특징이라 할 것이다. 그 결과 문화적으로 특성이 있는 도시, 두드러지게 활성화된 문예회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열성도 운영 성패의 중요 변수

한편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이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2001년)를 내면서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치단체 직영보다는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활성화 정도가 높고, 관람객 수도 많으며 1인당 관리면적도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적은 인력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이 위탁운영기관이란 것이다. 이는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나타난 문예회관 운영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문예회관 위탁운영의 사례는 예술의전당뿐이었다. 정부(건물)와 문예진흥원(토지) 소유인 예술의전당을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에 위탁운영한 것이 유일한 위탁운



대구문화예술회관 전경



구미문화예술회관 전경

영의 예였던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그 원인이기보다는 IMF가 가장 큰 원인인 문예회관 위탁운영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설립 운영, 민간법인 위탁, 기관장 영입 등 다양한 형태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민간 위탁운영이 문예회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보다는 감량경영, 구조조정, 수익성 증대 등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IMF가 위탁운영의 주원인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예회관 운영의 부정적 측면은 지나치게 수익성 증대만을 강조한다는 점일 것이다. 최근 경북의 K 문예회관은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곤혹을 치러야 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운영을 잘하는 기관으로 평가받은 이 문예회관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업장'이란 이유로 지방의회, 지역언론으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문예회관 운영의 성패를, 단지 적자 여부를 평가의 잣대로 삼는다면 문예회관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다하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의 문예회관은 보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의 일상 선거활동 대상 공간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자치단체장의 문예회관에 대한 관심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는 현격히 달라졌고 자치단체장의 문예회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의 중요 변수란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문예회관 운영은 자치단체장이나 관장의 관심과 열성이 운영 성패의 중요 변수가 되면서, 사람에 따라서 운영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현상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문예회관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사업장이었다.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역시 퇴임을 앞둔 사람을 대기 발령하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수공무원이 자청하여 근무하는 문예회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젊은 공무원을 관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관장에게 재량권도 부여하고 예산도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이 배정하여 활성화를 기한 전남의 S 문예회관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문예회관은 관장 역량에 의존한 나머지, 관장이 바뀌고 나니 전만 같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K 광역시의 경우 관장의 열성과 노력이 전국적인 평가를 받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연구」(2001년)에 따르면, 운영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볼 때 40점 이하의 문예회관이 12개에 이른다.

이들 소외 문예회관들을 살리는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는 하향식 문화정책에서 문화의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풀뿌리 문예회관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서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문화기반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그 관장이 퇴임한 이후 그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이와는 달리 관장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 체계를 갖추고 담당직원이 전문성을 지닌 문화예술회관은 운영 안정을 기하고 있다. 경북의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은 관장이 바뀌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예회관으로서 담당 직원이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전문성을 키웠고,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공연 부분에서 유일하게 학예 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 두 문화예술회관은 전국 문화기반 운영평가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음에도 운영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일 것이다.

#### 외부 전문가 영입, 자체 사업 시행 등 자생력 키우려 노력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애쓰는 수도권 일부 문예회관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과천, 안양, 의정부, 군포 등 서울 주변의 도시들은 서울의 문화적 흡인력에 의한 자생적 여건 조

성의 열악함으로 문예회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다. 서울서 공연되는 프로그램은 관람료를 매우 낮게 책정하여도 손님이 들지 않는 것이 이들 문예회관들에게 놓여진 현실이다. 거기다가 주민들은 지역에 살지만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문예회관이 지역문화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의정부예술의전당, 군포문화예술회관, 안양문화예술회관 등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문예회관들이다.

특히 개관 2년째에 불과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외부 전문가를 초대관장으로 영입하고 자체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지역문예회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음악극 축제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등 의욕적인 운영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역시 기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문예회관의 성격 정립에 주력하고 있고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중앙국악관현악단 등 민간 예술단체를 상주단체로 영입하여 연주활동을 돕는 등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고민은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수도권 문예회관들



의정부예술의전당 전경



안양문화예술회관의 문화예술 행사들

이 가진 고민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운영이 어려운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서울을 에워싼 수도권 지역문화예술회관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예술회관이라고 나온 점이 있을까? 서울의 문화적 흡인력은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이들 지역문화예술회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다. 더욱이 그 지역 주민들의 서울 지향적 생각과 문화적 향수 영역의 중첩은 더욱 이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처지에 부천문화예술회관은 2001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예술경영 전공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 전문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매달 '해설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문예회관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분당과 일산에서 열리는 조그마 한 음악회와 감상회, 그리고 양평군 서종면에서 3년째 매달 열리고 있는 '우리동네음악회'는 수도권 문예회관들의 운영 방향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지역문화예술회관은 공공성격의 기관이면서 지역문화의 중심적 기관이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접근성 증대가 무엇보다도 우선과제일 것인데, 서울 주변 수도

권 문예회관이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면, 군·구 단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상 어려움은 더욱더 열악한 여건이다.

101개의 전국 문예회관 중에서 하위 30여 개의 문예회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연간 1억원 미만의 예산과 길어야 60일, 통상 30일 정도의 운영 일수인 기관들이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2001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연구」(2001년)에 따르면, 광역시도 문화예술회관들의 운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반면 중소도시 문예회관들의 운영 평균 분포는 60점대가 가장 많고 100점 만점으로 볼 때 40점 이하의 문예회관이 12개에 이른다. 이들 12개 문예회관들은 예산부족, 인력부족, 지역 주민들의 인식부재, 지방정부의 정책부재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정도를 넘어, '절대 빈곤'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의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 40점 미만의 문예회관들이 자체 노력에 의해 운영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 배려가 필요한 문예회관들이라 하겠다.

## ‘소외’ 문예회관 살리는 운영 활성화 방안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중앙정부의 지방문화 지원정책은 건립 예산은 지원하지만 운영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란 입장이다. 문화관광부는 1997년 20개 문예회관 건립을 지원한 이래 2001년까지 5년간 67개 시설에 1,091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1개 기관 평균 지원금 16억 2,800만원이다. 단일기관으로 최대인 160억원을 지원받은 전북의 소리문화의전당을 제외한 지원금액은 931억원이며 연평균 1개 기관 지원 금액은 1억 8,600만원, 시설별 총 지원액은 14억 1,100만원이다. 이는 200억원이 소요되는 문예회관을 건립할 경우, 전체 건립비의 14.1%이고 300억원이 소요될 경우 7%대의 중앙정부 지원이다.

전체 건립비용의 7%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건립의 단초는 될지 모르지만 건립비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은 아닌 것이다.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32개 총 248개 자치단체에 각 1개소씩을 건립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147개가 건립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고지원 형태라면 향후 10년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건립 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문예회관 건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본의 경우 전국에 공공문화시설이 1,500개에 이른다. 196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문예회관은 이제 건물의 노화로 인한 리노베이션의 필요성 대두, 수요를 초과한 건립으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지방의 문예회관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회관간의 상호 협력보다는 과다 경쟁을 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1개 시·군마다 1개 문예회관이란 목표로 획일화하여 건립하는 경우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시설 과다로 인한 낭비적 요인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활용하지 않는 문예회관 건립은 의미가 없다. 공회당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굳이 지금처럼 200~300억원이 소요되는 호화시설로 건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의 절대 빈곤 문화예술회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건물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닥치는 것은 먼 뒷날의 얘기가 아니다. 이들 소외 문예회관들을 살리는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는 하향식 문화정책에서 문화의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풀뿌리 문예회관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다. ☆